

신안군 제안 '섬 데이터 댐' 구축사업 급물살 타나

이용빈 의원 국감 질의에 최기영 과기부장관 긍정 답변
신재생에너지·역사 자원 데이터 활용 '뉴딜사업' 과제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안군이 제안한 '섬 데이터 댐' 구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장관으로부터 "섬 데이터 댐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8월 열린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 국회 토론회.

'섬 데이터 댐' 구축사업은 신안군이 지난 6월 처음 제안했다.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인 섬과 그 섬이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역사·문화·자원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합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핵심 과제로 '섬 데이터 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을 이용빈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즉각 수용, 지난 8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섬 데이터 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영공의 기점인 섬이 몇 개인지, 각 부처마다 수치가 다를 정도로 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기부가 나서서 빅 데이터 플랫폼 사업 안에서 섬 데이터 댐 구축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섬에는 문재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핵심 자원인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자원 및 역사·문화·관광·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다"며 "이를 데이터로 수집·

가공·활용하면 새로운 경제생태계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답변을 통해 "많이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과기부가 추진하는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섬 데이터 댐'도 들어갈 수 있으며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낙후된 섬을 배려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무궁무진한 핵심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섬 데이터 댐 구축'을 제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 예산 확보 등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인 과기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약속한 만큼 '섬 데이터 댐' 구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24일 오후 완도읍 완도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의 선상 결혼식이 진행됐다. <완도군 제공>

'코로나에 안성맞춤' 완도 밤바다 선상 결혼식

군, 결혼식 3번 연기한 부부 선정... 유튜브로 생중계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바다 위 환율한 야경과 함께하는 로맨틱한 선상 결혼식이 화제다. 지난 24일 오후 6시 완도항에 정박한 슬로시티 청산도호에서는 특별한 선상 결혼식이 진행됐다. 이날의 주인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세 번이나 연기해야 했던 올해 27살 동갑내기 부부였다. 선상 결혼식은 이색적이었다. 대형 LED를 통해 하객들에게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며 선상을 환하게 비추었고, 레드카펫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바진로드는 주인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불꽃을 배경으로 힘차게 등장한 신랑에 이어 2층에서 한발 한발 걸어 내려오는 신부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인원을 제한한 탓에 참석하지 못한 하객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50여 명의 랜선 하객이 함께 했다.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영상 메시지가 무대 화면으로 송출됐고, 진심 어린 축하에 활짝 웃던 신부가 눈시울을 붉혀 하객들도 동클했다고 한다. 팝 공연과 재즈 음악이 선상과 밤바다에 울려 퍼지며 아름다운 결혼식의 한 장면이 연출됐다. 선상 결혼식을 올린 신랑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자주 연기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마침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이벤트에 선정됐다"면서 "선상 결혼식이라 이색적이기도 하지만 아내의 생일날 결혼식을 올리게 돼 더욱 의미있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동안 식을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부부에게 무대를 활용해 결혼사진을 찍을 기회를 제공했다. 완도군은 선상 결혼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기간에 고정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정과 사회적 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모델이 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고 청정완도 가을 섬여행 추진위원장은 "처음 시도되는 선상 결혼식은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섬과 바다로 둘러싸인 완도의 특성을 살려 준비했다"며 "선상 결혼식을 코로나 시대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웨딩문화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을 미래에너지 수소도시로"

군 '한빛원전 폐로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영광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보고회는 지난 2월 착수보고회 이후 용역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8개월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NEW 영광'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를 세웠다.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2차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구체적으로 ▲Plus-City는 미래에너지도시 전환 방안 ▲Neo-City는 폐로관련 법 및 행정정보방안 ▲Edu-City는 미래사회 대비 인력육성 방안 ▲Wows-City는 미래에너지도시 영광과 연관된 관광인프라 확보 방안 등이다.

목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28~29일 20개 기업 100명 채용

목포시는 고용노동부·새남남도고용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28~29일 이틀간 목포산단취업희망센

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인력 1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취·창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면접은 사전 등록한 구직자를 시간대별로 분산해 실시한다. 또 가

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녹화 면접도 병행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7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하거나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된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저자 이진

이진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